“붓다·원효의 길, 새로운 인문 지평”

동국대 세계불교硏, 울산대 원효학硏 공동 세미나

박태원 교수, 원효 一心 분석
분별 해제 · 차이 만나는 마음
원효가 성찰한 깨달음 문제는
언어·사유·차이 범주 내 접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효 스님이 보인 깨달음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대학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과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소장 박태원)는 3월 16일 동국대 만해관에서 ‘분황 원효와 깨달음 담론의 구성(Ⅱ)’을 주제로 제3차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붓다와 원효의 깨달음을 비교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원효학토대연구소장)는 ‘원효의 일심과 깨달음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태원 교수는 원효 스님의 일심을 “‘본체 · 현상 존재론’으로 접근하는 한 우파니샤드의 사유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독법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효의 글에서 ‘일(一)’은 수사용법이 아닌 무겁고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효가 ‘일(一)’이라는 부호에 자신의 모든 성찰과 체득을 압축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나 형용사가 아닌 ‘동사적 국면’을 담은 것이라고 봤다.

박태원 교수는 “원효은 ‘일(一)’이라는 기호에 다른 용어를 결합하며 ‘일(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다”며 “‘일(一)’에 ‘하나처럼 통하는’이라는 번역어를 대입하니 일관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태원 교수는 붓다의 법설의 핵심이 “깨달음이나 해탈의 이로움을 누리려면 차이들과 만나는 관계능력을 바꿔야 한다”는 ‘육근수호 법설’에 있음 상기시키며, 이를 원효의 일심과 비교했다.



박태원 교수가 밝힌 원효 스님이 설한 일심의 정의는 ‘허구적 분별의 장벽을 해제하면서 차이들과 만날 수 있는 마음 능력’이다.

이에 대해 그는 “차이들과 만나는 언어와 사유의 이로운 능력과 지평을 여는 마음의 힘, 그것이 일심”이라고 설명하며 “붓다와 원효의 길은 ‘언어 · 사유 · 차이들의 존재의 집’인 인간이 근원적 안락과 자유의 이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붓다와 원효가 보인 길은 새로운 인문 지평으로, 이는 지금 생동하는 인문학의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는 게 박태원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불교에 대한 원효의 성찰과 체득은 깨달음의 문제를 언어 · 사유 · 차이의 범주 내에서 접근하게 한다”면서 “원효는 다양한 맥락에서 불교 언어들을 종횡으로 서로 엮어가면서 이 같은 안목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붓다와 원효의 언어와 통찰이 박제화 돼 있다면 이는 언어 · 사유 · 차이와의 접속 고리를 끊어버리는 해석 때문”이라며 “이 접속 고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불교학을 비롯해 보편지혜를 탐구하는 모든 인문 학인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깨침 혹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붓다의 깨침과 원효의 깨침(고영섭, 동국대) △원효의 보살수행단계 해석에 나타난 깨달음의 의미(김준호, 울산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닦음과 깨침(최건업, 동국대) △원효의 수행론에서 나타나는 자리행과 이타행의 공속성(강찬국, 울산대) 등이 발표됐다.

불교유산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은

내포문화사업단, 3월 28일 학술세미나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 내포문화권을 대표하는 성보문화재다.

가야산 불교문화유산으로 내포문화권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내포문화사업단(공동대표 정범 · 신명)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이종수)은 오는 3월 28일 오후 1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내포문화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가야산 일대 불교문화유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야산은 일찍이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인도를 비롯해 중국 · 일본과 불교 및 문화교류를 위한 해상교역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이로 인해 경주 남산 못지않게 불교문화가 크게 융성했다. 가야산에는 백제 마애불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화엄십찰’의 하나였던 보원사지를 비롯해 가야사지 · 수정암지 · 적조암지 · 보현사지 등 수많은 폐사지가 남아 있다. 또한 개심사 · 일락사 등의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가야산 일대 불교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조명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는 ‘내포 가야산 불교문화의 위상’을 주제로 사재동 충남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제1부 ‘가야산 중심사찰 보원사의 역사문화적 위상’, 제2부 ‘내포 가야산의 불교문화유산과 활용방안’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제1부에서는 ‘보원사의 역사문화적 의의’(김방룡 충남대 교수), ‘해양 실크로드와 보원사의 위상’(강희정 서강대 교수), 제2부에서는 ‘내포 가야산 사찰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박범 경성대 교수), ‘내포 가야산의 옛 절터 위치와 특성’(한기흥 서산역사문화연구소장), ‘내포 가야산 불교문화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와 활용방안’(김선임 내포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등이 발표된다.

내포문화사업단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내포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내포문화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는 우리 지역의 당면 과제”라면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가야산 일대 불교문화유산의 가치와 특징을 조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환경 발굴 · 연구 실무 이해 돕는다

경주문화재硏, 안내서 발간

문화재청 산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하는 조사자들의 고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고환경 연구를 위한 발굴조사 현장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고환경 연구는 발굴조사만으로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옛사람과 주변 환경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다.

이번 발간된 〈고환경 연구를 위한 발굴조사 현장 안내서〉는 출토되는 유기질 유물을 가장 먼저 접하는 현장 조사자들이 이를 철저히 조사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고환경 연구팀’은 풍부한 현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유물의 수습과 분석, 연구에 이르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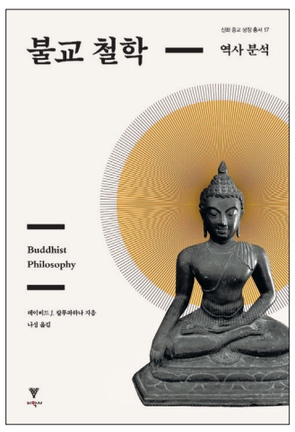
안내서에는 △고환경 연구의 필요성 △조사 전 계획수립과 점검사항 △목재 · 씨와 열매 · 미화석 · 사람과 동물 뼈의 실제 수습과 보관 방안 △토층의 이해 △고환경 연구의 방향 등을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있는 그대로’ 불교를 고찰하다

주목! 학술서 〈불교 철학–역사 분석〉

초기불교 철학적 측면 조명
다변화된 사상 큰 줄기 확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붓다의 말대로 그의 근본 가르침은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붓다의 사후에 불교의 각 학파들은 자신들이 붓다의 진정한 대변자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교의에 따라 붓다의 근본 가르침을 해석해왔다. 인도에서 동아시아까지 전파된 불교는 그 과정에서 종교적 가르침이 강조되며 내재된 철학적 가치가 등한시 돼왔다.

최근 발간된 초기불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故D.J.칼루파하나(1936~2014)의 〈불교 철학- 역사 분석〉은 대승과 소승으로 나눠지기 이전의 초기불교를 주목한다. 정확하게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초기불교의 ‘철학적’ 측면이다. 저자는 초기불교가 가진 철학적 풍부함에 상시시키고 이를 통해 불교의 세계 종교적 측면을 재정립하려 한다.

저자는 그간 대승과 소승의 구도 속에서 각각 다르게 이해된 불교 사상에 새로운 흐름을 부여한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인도의 사상적 배경 속에서 불교가 발생하게 된 철학 · 종교적 맥락을 개괄하고, 붓다의 인식론 · 존재론 · 윤리학 · 연기 · 업 · 윤회 · 열반과 같은 교의를 통해 초기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강조한다. 이러한 작업은 붓다가 감각 및 초감각적 지각을 통해 경험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모두 거부했음을 입증하려 한 것이었다.

제2부에서는 붓다의 사후에 변화하기 시작한 불교 사상을 추적한다. 먼저 저자는 학문주의 성향을 갖는 부파불교의 상좌부, 설일체유부, 경량부가 아비달마 문헌에서 보여주는 각기 다른 철학적 해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부파불교와 초기불교의 관계, 대승불교 발전의 기여점을 고찰하고 있다. 이 같은 불교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학파의 해석이 덧대어지며 다변화된 불교 사상의 큰 줄기를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불교 철학을 살펴보는 이 책은 대승과 소승 사이에 놓인 커다란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그간 수용된 불교 관념들에 독창적이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실제 저자는 “많은 서구 학자들이 ‘열반’을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인도의 수행주의 전통과 붓다의 요가 수련 경력을 설명하며 “열반은 정의나 서술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역시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불교를 수용한 입장에서 저자의 견해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다. 하지만 복잡한 역사, 다변화된 사상 등을 넘어 ‘있는 그대로’ 불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견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민 기자

도덕·윤리교과서 불교 서술 점검

불교사회硏 · 강창일 의원실 3월 27일 세미나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편찬된 현행 초 · 중 · 고 도덕 · 윤리 교과서의 불교 서술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와 강창일 국회의원실은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중고 도덕 · 윤리 교과서 불교 관련 서술 내용 점검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불교계가 요구한 사안들의 반영 여부 확인과 향후 개선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김완수 이리 부송초 교사는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불교 관련 내용 분석 및 적용 방향 고찰’을, 김은미 전주교대 강사가 ‘중학교 도덕 교과서 내용 돌아보기-불교 이야기가 있는 도덕 수업을 위해’, 신희정 창원 중앙고 교사가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서술 체제 및 내용 분석 연구’를 각각 발제한다.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박영주 울산 무거초교 교사, 허남결 동국대 교수, 김호귀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초중고 교과서 검토 사업을 진행,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불교관을 정립하고자 진력해왔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된 도덕 · 윤리교과서의 불교에 관한 내용과 서술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떤 점이 더 보완돼야 하는지를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Buddhist True Network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정목스님의 나무아래 앉아서 무일 우학스님의 외로움 강의 라마 서유기 금강경 독송 김원수법사의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내 안에 가능성을 찾는 희망레터 일감스님의 만행 오늘은 좋은날 비긴즈 생방송 붓다회 현장탐방 길 위의 우리역사 금정총림 범어사 53선지식 반야심경 천일화엄대법회 다시보는 법문 청화스님 일감스님의 만행 조아질라고 운수사 범일스님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더 붓다 생방송 붓다회 무비스님의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BTN 뉴스 동의보감으로 보는 깨음의 소리 현대인의 병 닥터스 사자후 설우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야보송 담선법회 보각사 법담스님의 화엄경 약찬게 술술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3 광우스님의 소나무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우리절 우리스님 스트레스 관리와 알아차림 명상 장현갑 교수의 명상, 뇌를 바꾸다 BTN 클래식 특강 지혜의 대불학 BTN가족수계법회드라마 우리는 붙자기족 일나다 붓다 절에서 만난 친구 친절 천수경 이야기 보리선수 약사선원 진푸티선사 법문 정대행 생방송 깨우는 붓다회 나를 108배 동춘스님의 영불이야기 별안스님의 경전강좌 희말레 구원의 노래 정안스님의 행복한 화엄경 기쁜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BTN 신행이야기 기제 옛것이 좋다 BTN 스트레스 관리와 알아차림 명상 월도스님과 함께하는 BTN 촉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환산스님이 전하는 송담선사의 화두참선법 대전형통사 초청 법회 대원지장 점찰선악업보경

스마트폰(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BTN이나 불교TV를 검색 후 BTN 앱을 다운받으세요!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케이블TV 채널문의 02.3270.3300 |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ARS방송포교 후원전화 060-800-7000